

해변에서 만난 현대무용

Modern Dance I met at the beach

김형남, 이보람*, 최청지**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Kim Hyoungnam, Lee Bolam*, Choi Chungja**
Sejong Univ., Sejong Univ.*, Sejong Univ.**

I. 작품 〈해변의 남자〉 이미지



2014년 10월 21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대한민국예술원 춤의 향연 공연 중

II. 작품 〈해변의 남자〉 작품 설명

뫼마루 무용단의 대표적인 작품 〈해변의 남자〉는 세계의 연작 시리즈 중 여름을 완성 하게 된다. 깊은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색채의 작품이라는 호평과 함께 아틀란타 올림픽 초청작품으로 최다 공연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작품 〈해변의 남자〉는 연작 시리즈 '사계' 중 여름을 주제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현대 남성들의 고단한 내면세계를 코믹하면서 이색적인 상황, 즉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적인 요소들로 보여지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1995년 초연 되어 현재까지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이다. 관객의 영당이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리듬, 일상적 움직임을 모티브로 한 춤, 테크니컬하고 파워풀한 움직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담고 있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한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8-2016-0-00312)

1. 해변의 여인

잔잔한 파도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해변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 평화로운 음악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몸매를 뽐내며 여름을 한껏 즐기면서, 사람들을 해변으로 부르는 듯 한 느낌은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바닷물에 비치는 노을을 표현한 조명은 관객들에게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준다.

2. 일탈을 꿈꾸며

하와이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긴 치마를 입은 남성들이 새침하게 등장해 관객들에게 재미를 가져다준다. 섬세하고 발랄하며, 남자답지 않은 여성스러운 표정과 움직임으로 관객들이 작품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박수, 호응을 유도 한다. 사회생활에 지쳐 있지만 남자들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동심, 순수하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들이 움직임으로 보여 진다.

3. 자유로운 영혼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의 의상이 바뀐다. 하지만 여전히 치마를 입고 있다. 무용수들은 여전히 여성스러운 면을 지니고 있지만 점점 더 파워풀해지고, 해변으로 곧 떠날 것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이 보여 진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은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남성들의 짧은 치마라는 부분을 경험하면서 새로움을 느끼게 된다.

4. 남자, 해변에서 꿈을 꾸다

파도 소리와 함께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은 사회생활에 지쳐 있는 남자를 해변으로 부른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의 탈출과 휴식 그리고 여유를 찾는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이 장면은 바쁜 직장인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꿈을 꾸는 이미지가 한껏 드러나는 부분이다.

5. 현실 속의 직장인들

흰 양복의 무리들이 경쾌하고 즐겁게 그리고 바쁘게 무대에 등장한다. 이들은 시계를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사람을 만나는 등 회사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표현한다. 때로는 확일적으로 맞추어진 틀에 박힌 움직임, 다 같이 긴장되어 경직된 움직임, 긴장이 풀어진 편안한 움직임, 어딘가를 향해 모두 다 같이 걸어가 는 움직임, 그리고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달리는 움직임은 회사원들의 지루한 업무 그리고 쳇바퀴 같은 회사 생활에 익살스러운 요소를 접목시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현대무용의 절도 있고 파워풀한 움직임과 개개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파드는 현대무용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관객들이 공연에 더 빠져들도록 만든다. 또한 뒷부분에 무용수가 롤링 하는 장면은 무용수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여줌으로 인해 화려한 기량을 뽐내기도 하지만 파도의 웨이브를 연상시켜 작품 끝까지 해변이라는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심어준다.

6. 피날레

작품에 등장한 무용수 모두가 인사하는 마지막 신은 관객이 무용수 개개인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움이 배가 된다. 마지막 퇴장도 객석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해변으로 떠나는 회사원들을 연상시키고, 관객들이 퇴장하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Ⅲ. 작품 평론

뿃마루무용단의 대표인 김형남 교수는 세종대학교 현대무용 전공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공연예술과 무용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국내의 융합 예술 작업을 선도하고 있다. 뿃마루 무용단은 1980년 창단 이래 총 예술 감독 최청자 교수님과 함께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작품으로 다양한 시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게임, 동계 패럴림픽과 같은 국가의 주요 행사를 비롯하여 문화소의 지역을 위한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소시민을 위한 예술교육에도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젊은 안무가들의 양성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이 국내외 각지에서 왕성한 활약으로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실험적인 무대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작품 〈해변의 남자〉는 무용수의 기량과 연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무용 공연을 할 때 빛을 발한다. 재미와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작품의 구성을 비롯해 세월이 흘러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작품이다. 또한 무용을 처음 보는 관객들도 작품 내용을 쉽게 이해하여 관람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장점을 발휘하여 예술교육에 활용하여

무용을 쉽게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쉽게 무용이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며, 한 번 보면 여운이 길게 남아 현대무용이란 무엇인지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공연되어진 긴 세월만큼 더 많은 관객을 찾아가고, 의미 있는 공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